

## 과학기술정책의 사고전환을 기대하며

글\_ 류재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ryujc@kist.re.kr

‘과학 전문위성방송국’ 설립이 구체화되어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과학기술정보 및 과학문화 전반에 걸쳐 내년에는 일반 국민과 널리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정부부처간의 많은 협의와 산고 끝에 우리 나라의 미래를 선도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기술’이 선정 발표되었고, 긴축예산 등 여러 국내외의 어려움 속에서도 2004년도 국가예산에서 과학기술부 예산은 8% 정도 증액된 예산안으로 책정된다고 한다. 일선과학자로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이라는 화두와 더불어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과학기술자 스스로의 의식과 자세전환을, 필자는 ‘과학기술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논단에서 이미 촉구한 바 있어,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대를 표명해 보고자한다.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표출된 국민적 관심과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지금이 과학기술정책 전환에 매우 적절한 시기일 것이다. 우선적으로 연구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수행주체이며 연구인력 현장의 목소리인 일선과학자들의 소망을 담아내어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과학기술자들이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김포공항신드롬이란 말이 있다. 이제는 공항이 바뀌었으니, 인천공항신드롬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나, 모두 외국에서 공부할 때에는 좋은 논문도 내고, 자부심과 희망도 있었지만, 국내에 들어와 몇 년이 지나면 좋은 논문도 못내고, 연구비 확보를 위해 자기의 주 전공분야를 벗어나게 되고, 로비하러 다니고, 자존심은 다 사라지고 연구보다는 다른 일에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은 현재의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과 국가의 바람에 부응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란 것이다.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다고는 하지만 국가 기술지도 작성은 물론, 국가 연구개발 방향과 목표설정, 사업단 및 사업단장선임, 나아가 연구과제의 RFP작성, 과제선정은 물론 기획, 평가 등등의 여러 단계에서 현재의 연구평가, 선정, 관리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착시켜 일선과학자들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데 특히 정책담당자들은 매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박사학위를 가진 과학자출신이라고는 하나 연구활동을 떠나 주로 행정 업무를 해온 행정과학자들에 의한 결정보다는, 일선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선 연구자들이 공감하도록 가급적 많은 수의 일선과학자들의 의견수렴과 결정과정의 참여 폭 확대 등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기술정책이 행정과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다 보니, 현장을 알고 있는 듯하면서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정책들이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일선과학자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오히려 그들만의 정책이 많았다고 하면 과연일까?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정책은, 각 정부부처별로 설립되어 일선과학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무슨무슨 진흥원, 무슨 무슨 평가위원이란 기관 아래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국가 R&D의 계획, 구성, 선정, 집행, 평가 등등을 대행하는 이러한 평가 및 행정기관을 하나로 묶어서 가칭 '국가 연구개발 종합관리센터(National R & D Center)'로 통합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늘상 국가 연구과제선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구과제의 중복문제도 개개의 기관에서 선정과 평가를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므로 이러한 중복의 예방, 실효성 있는 국가 연구개발 아젠다 설정, 효율적인 과학정책의 확립, 각 부처별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연구테마에 관한 조정 및 원활한 다학제간의 의사소통 등등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이 극대화 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20년 이상의 일정기간 연구실경력과 일정수준 이상의 논문, 특허 등의 연구실적과 일선 연구현장경력이 풍부한 일선과학자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면 한다. 일선연구실을 떠나 어느새 직업자체가 행정과학자로 되어 평생 무슨무슨 평가기관의 행정기능, 정책기능부서만을 맴돌며 국가 연구개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행정과학자들에게도, 그들에 의해 입안된 과학기술정책에 관해 명확히 하도록 하여 책임지는 행정과학자들이 되도록 일선과학자들이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행정과학자가 "연구자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와 불평불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향수에 잠길 만한 좋았던 과거시절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의견이나 건의를 불평불만으로 치부하는 이러한 안이한 현실인식이 지금의 우리 과학기술정책담당자들의 전부는 아니라고 믿고 싶다. 수많은 주위의 일선과학자들은 여러 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여러 개인적인 삶의 고민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행정적인 규제, 연구자 개개인의 주전공을 인정하지 않는 연구기획, 연구과정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연구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만을 전제로 한 평가기준, 전기료까지 일선연구자들의 연구비에서 지불하고 있는 연구소 현실, 십수년간의 각고의 자기계발로 얻은 학문적인 명예와 자존심을 고려하지 않는 체계, 특정출신의 연고주의로 대변되는 인사행정 등등, 그 동안의 이러한 정책으로 황폐화된 일선연구자들의 자존심이 회복되도록 정책담당자들은 부단한 노력과 이해를 경

주해 먼 훗날, 향수에 잠길 수 있는 좋은 연구환경조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정권이나 장관이 바뀌면 어김없이 거론되는 과학기술계의 몇 가지 단골 화두 중의 하나가 조직개편을 명분으로 한 과학기술계의 통폐합문제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며 과연 그렇게 조직에 문제가 있는건지, 조직편제 때문에 연구활동에 전념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일선연구자들이었는지, 국가차원이란 미명하에 그 동안 수차례의 조직개편, 구조조정을 입안한 행정과학자들은 이처럼 거듭되는 되풀이에 과연 어떠한 책임을 지었고, 일선과학자들과 과학기술계에 과연 무엇을 남겼으며, 국가적으로 득이 된 점은 무엇이었는지 깊은 자성이 필요할 것이다.

일선과학기술자들 모두의 간절한 바람은 조직개편이니, 통폐합이니 하는 이벤트성 연구기획보다도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존중하고 이해하며, 간섭을 줄여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넓은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소박한 소망임을 행정과학자나 과학정책담당자들이 이해했으면 한다.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해법도 지금의 과학정책을 하는 분들이 이공계 기피현상의 핵심을 보다 솔직하게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해결책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연구소출신의 과학기술부 장관의 탄생 등으로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도 행정과학자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일선과학자들을 위한 연구현장의 목소리, 일선과학자들의 소망을 반영하려는 부단한 정책적 노력과 신뢰증진을 위한 정책담당자들의 노력만으로도 이공계 기피현상의 해소는 물론 우리 일선과학자들의 사기는 크게 진작되리라 본다.

19세기 교육시설에,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일선연구현장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일선과학자들에게 보다 넓고 자유로운 생각, 행동, 표현 등 여러 분야의 자유로움을 갖도록 배려하여 천재성과 창의성을 가진 우리들의 자랑스런 일선연구자들을 전세계적인 인재로 키워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성장해 가며 필요로 하는 여러 의미에서의 자유도를 구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에서의 깊은 사고전환으로, 국민과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첫걸음을 내딛길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㉔